

기획특집논문

## 현대 행정권력의 새로운 이해: Foucault 주장의 재검토\*

이 문 수\*\*

- I. 머리말
- II. Foucault와 권력
- III. 몇 가지 문제점들
- IV. Foucault의 권력 분석틀의 비판적 발전
- V. 맺음말

### 〈요약〉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학계에서 권력에 대한 논의는 과거 행태주의자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20세기 후반부터 Michel Foucault를 중심으로 탈구조주의적 혹은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입장에서 나온 권력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을 검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Foucault의 권력에 대한 주장들을 필자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도 Foucault 권력론과의 관련 아래에서 탐색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행정권력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질실히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주제어: 권력, 행정권력, 미셸 푸코]

### I. 머리말

Robert Dahl(1957: 202-3)이 “A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무언가를 B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만큼 B에 대하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정의한 이후로 권력은 개인의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능력 정도로 이해되어 왔었다. 그 후 Dahl의 행태주의적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써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

\*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과제번호: 20111250)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대구가톨릭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mslee@cu.ac.kr)

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권력을 조망하려는 시도가 Bachrach & Baratz(1963)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비가시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 Steve Lukes (1974: 24)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이건 간에 현존하는 질서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지각, 인지작용, 그리고 선호의 형성을 통해서 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권력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은밀한 작동방식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1970년대 중반 Lukes가 주장한 개인의 내면의 장악을 통해 권력이 작동한다는 논제는 구조주의 Marxist였던 Louis Althusser(1971)가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subject)로 형성하면서 기능한다는 논제와 맞물리면서 권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전개되었던 권력에 대한 논의에 결정적 획을 그으면서 탈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권력의 역동적 모습을 보게 한 이는 Michel Foucault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죽은 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권력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또 이를 경험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이 말해주고 있다. 단 애석한 일은 사회적 실천에 내재한 권력을 연구하건 또는 제도화된 형태로의 권력을 연구하건 Foucault의 권력 논의의 중심에는 행정권력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행정학계에서는 아직까지 Foucault의 권력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잘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sup>1)</sup>. 이는 Foucault의 권력 개념이 현재 주류 행정학계에서 생각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Foucault의 권력론 대한 연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보인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보이는 관계는 비록 그것이 동의에 기초한 것이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든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권력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관계 역시 대부분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정학자는 자신이 다루는 주제가 비록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권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력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권력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1) 국내의 행정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Foucault의 권력에 논의가 상당히 있어왔다. 그러나 보통은 규율권력 혹은 생명권력 등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Foucault의 전체 연구 성과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고 보인다. 대표적 연구로는 최정운(2000), 이동성(2009) 등을 참고.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자는 행정 권력의 기본적 성격, 존재 방식, 작동방식, 권력기술,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 권력이 발생시키는 의도된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나 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을 덧붙이면서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행정학에서 권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필자 나름의 답을 모색하고자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다소 급진적 주장을 하는 이들에 관심을 돌리는 이유는 먼저 이들의 권력 개념과 행정학에서 상정하는 권력 개념과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21세기 특히 9/11 사태 이후 보이는 국가권력의 새로운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논의는 먼저 Foucault의 권력 개념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Foucault의 권력이론은 우리에게 권력을 보는 새로운 시야와 관점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풀기 어려운 질문도 제기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권력의 외부는 존재하는가?” “권력 비판의 준거점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저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들이다.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결의 단서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Foucault의 윤리론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Foucault의 권력론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현대의 권력 이론 가운데 행정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sup>2)</sup>. 결론에서는 Foucault의 권력론이 가지는 함의를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II. Foucault와 권력

일반적으로 Foucault는 계몽주의적 이성(reason)의 객관적 지위를 부정하는 학

2) 이 부분은 논문에서 누락되어도 논문의 구성에는 별 지장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21세기 Foucault의 권력론의 연구방향을 가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행정학에 던지는 Foucault 권력론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자로서, 또는 서양철학에서 상정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체(subject)란 사실 지식/권력 게임의 의하여 만들어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체의 소멸을 주장한 학자로서, 또는 대표적 저서인 『규율과 처벌』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옥, 군대, 병원, 학교 등에서 시선(gaze)의 내면화에 의한 규율화를 통해서 “유순한 몸(docile body)”이 양산되면서 전체 사회가 “감금사회(carceral society)”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힌 학자로 알려져 있다. 즉 Foucault는 어떠한 과학적 방법도 권력이라는 변수를 사상한 채로는 진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보는 선험적인 인간 본질(Descartes의 cogito)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구조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인간의 사유나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는 권력과 지식의 복합체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Foucault의 지적 궤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Foucault의 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문제의식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Foucault(1982, 213)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체(subject)의 형성과 관련된 주체화(subjectivation)와 주체가 권력에 의해 규율되는 예속화(subjection)와의 복잡한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초기 저작부터 후기까지 주체와 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역동적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체와 권력에 접근하는 그의 방법론은 초기의 담론구조와 지식의 형성을 다루는 고고학(archaeology)과 중기의 지식과 권력의 밀착관계를 다루는 계보학(genealogy), 그리고 후기에 오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자아의 형성과 변혁을 다루는 윤리학(ethics)으로의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지식의 고고학은 19세기에 발전하는 인간과학(human science)의 도움으로 정상적(normal) 개인의 자아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권력의 계보학은 지식과 결합한 사회제도나 조직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개인이 실재적으로 어떻게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윤리학은 위와 같은 내부적, 외부적 규정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예속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론의 변화와 함께 권력 개념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도 변

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Foucault의 권력을 연구할 때 반듯이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Foucault의 권력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강조해두고 싶은 점은 Foucault의 권력 논의는 결코 권력의 일반이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Foucault가 권력에 대한 연구에 그의 거의 모든 학문적 에너지를 소비했던 이유는 결코 권력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축하려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채롭게 전개되는 권력의 작동방식, 기술, 목적 등을 탐구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론을 권력이론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분석틀(analytic of power)”라고 명명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시작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권력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결코 권력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일반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권력(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며, 누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어떤 시점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일어나서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Foucault, 2007: 3-4)

즉 Foucault의 권력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어떤 사건에 의하여 권력과 지식(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실천이나 제도를 포함하여)으로 작동되며 그 효과는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당연시 되고 정당해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봉사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서 우연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저변에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지만 권력의 힘으로 배제된(excluded)되고 비정상적인 되어버린 이상, 제도, 집단, 개인들의 복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다소 산만하게 이해되었던 Foucault의 권력 개념을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볼 것이다. 이는 Foucault에 대한 연구서들이 그의 권력 개념 가운데 한두 가지 만을 중심으로 정리 한 것에 대하여, 1970년대 이후 그의 모든 저작에 나타났던 권력 개념을 망라한 정리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1. 권력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내재한 것이다.

권력을 행위자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로 보는 관점은 Robert Dahl의 다원주의 권력론과 C. Wright Mills의 엘리트주의 권력론 간의 논쟁이후로도 현재까지 지배적 관점이 되고 있다. 그 후 Bachrach & Baratz(1963)나 Steve Lukes(1974)에 의하여 권력의 새로운 얼굴들이 밝혀졌지만 그들도 비록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나 사회구조적 제약 등 권력의 비가시적 특성을 강조하지만 권력을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capacity)로 보는 점에서는 행태주의적 권력론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보인다(Hayward, 2004). Foucault의 권력 비판은 Marxist들의 권력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Marxist들의 권력 개념도 비록 그 소지자를 국가나 지배계급이라는 추상적 실체에 놓고 있지만 이들도 권력을 누군가 보유할 수 있는 사물이나 실체로 보는 점에서는 행태주의자의 관점과 유사한 것이다.

Foucault의 권력이론이 가장 독창적인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sup>3)</sup>. Foucault에게 권력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중앙정부 등에 집중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강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은 “취득하거나, 포획하거나,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Foucault, 1979: 92). 권력을 이와 같이 “상품(commodity)” 또는 “특성(attribut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권력의 소유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권력 자체 또는 권력의 작동과정과 방식은 무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Foucault, 2003: 13).

기존의 권력연구에 반하여 Foucault(1979: 94)는 권력은 관계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회 안에서의 복잡한 전략적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사회적 힘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로서의 권력은 항상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가변적인 속성을 갖는다. 다른 말로 Foucault는 권력을 위력을 발휘하는 외부적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 내재하는(immanent)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글에서 Foucault(1982: 221)는 권력의

3) Foucault는 자신의 권력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당시 권력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의 학자들의 주장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공백은 그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이나 Weber의 권력 이론도 그의 권력 개념 형성에서 거의 참고하지 못했다는 자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영미의 학자들이 권력을 말하면서 이를 권력 소유자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Foucault의 비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Kelly, 2009: 35-6).

전략적 성격을 “타자의 행위에 대한 행위(mode of action upon the action of other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권력의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을 관계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권력은 단순히 상위의 정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 또는 아래로부터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된다. 또한 권력을 사회나 조직을 관통하는 네트워크로 본다는 것은 권력관계가 다른 유형의 관계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존재하고 독립된 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관계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된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고 있는 다른 인간이나 집단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그것이 교우관계이건,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이건,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이건 모두가 전략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권력관계인 것이다. 또는 조직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조직 내에서의 권력은 누군가가 많건 적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다양한 관계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정형화시키거나 영속화시키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과 자유는 반대에 위치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위치에도 놓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권력을 타자의 행위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은 타자가 어느 정도의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략적 관계의 설정도 불가능함을 말한다. Foucault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한 쪽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약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권력현상이 아니라 지배(domination)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권력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권력관계가 지배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도 밝히고 있다.

## 2. 권력은 사회 전반에 모세혈관적으로 퍼져 있으며, 일상적이며 미시적 수준에서 권력관계는 작동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권력을 보아야 한다는 Foucault의 주장은 권력이란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하여 행사되고 소유되는 영향력이라는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인 “법률-담론적(juridico-discursive)”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 때

Foucault(1981: 227)가 말하는 권력에 대한 “법률-담론적” 패러다임이란 서구 정치 철학에서 Machiavelli, Bodin, Hobbes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것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주권(sovereignty)을 설정하고 이를 소유한 군주를 정점으로 법률과 권리 등에 기초하여 권력의 정도를 사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권력은 그것이 전통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국민의 동의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정점에 위치한 소수의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한 것으로 이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실제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을 항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항상 국가의 정점에 위치한 이러한 권력을 감시하고 또는 이에 저항을 해야만 자신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 “법률-담론적” 권력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항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이는 Marxist 정치이론에서도 관찰되는 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Foucault가 70년대 이후 Marxist적 저항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Deacon(2003: 117-8)은 말하고 있다.

Foucault에게 권력에 대한 “법률-담론적” 패러다임은 지극히 진부한 것으로,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권문제를 둘러싸고 세워지지 않은 정치철학이다... 우리는 왕의 목을 베어야 한다.”(Foucault, 1980: 121)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 권력은 더 이상 주권자의 과시적이고 현시적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 일정표, 사무실의 구조와 가구배치, 성(sex)에 대한 지배적 담론 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법률-담론적” 패러다임에서 권력은 특히 금지나 억압을 통해서 행사된다고 개념화된다. 부정적이면서 제한적 특징을 지니는 권력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런 힘은 법에 의하여 지탱되는 다양한 제도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은 권력 패러다임은 또한 우리에게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권력의 감시를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법률-담론적” 관념에 대하여 Foucault(1977: 194)의 요구는 단호하다:

“우리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권력의 영향을 기술하는 것을 영원히 중지하여야한다. 권력은 “배제한다”, 권력은 “억압한다”, 권력은 “검열한다”, 권력은 “추상화한다”, 권력은 “가장한다”, 권력은 “은폐한다”. 사실 권력은 생산

하는 것이다, 권력은 현실을 만든다, 권력은 객체의 영역과 진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 개인과 그 개인에 대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바로 이 생산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Foucault는 결코 모든 권력관계를 미시적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논의를 종결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권으로서의 권력 개념을 폐기하고 권력의 작동을 규율화나 주체화와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인간관계로 환원시켜 보게 되면서 미시적 수준의 권력관계와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행해지는 권력관계와의 관련이 Foucault 자신에게도 풀어야 할 난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Foucault가 1977-78년 사이에 *Collège de France*에서 행한 강의의 내용과 거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인 “통치성(governmentality)”이 현재 학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많은 학자들은 “통치성” 혹은 통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미시-물리학(micro-physics of power)”과 거시 정치제도를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관계도 국가의 다양한 제도 수준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Foucault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치성” 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다<sup>4)</sup>.

### 3. 권력의 작동을 통해 인간은 주체(subject)가 되며, 그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의 개성이 무엇인지 지정하고,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인정하는 진리의 법칙을 그에게 부과하면서 권력은 일상생활에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권력인 것이다.”(Foucault, 1982: 210). Foucault에게 주체는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소자의 경우 그의 주체성은 감옥에서의 규율적이고 정상화(normalizing)를 추구하는 권력 기술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지식체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재소자의 주체성은 권력/지식의 교차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 주체 형성의

4) 이 논문에서 “통치성”에 대하여 상세한 언급을 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인다. Foucault의 통치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Gordon(1991), Dean(1999), Lemke(2002) 등이 있다.

중요한 측면인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역시 결코 개인이 지니는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성적 담론과 그것에 기초한 제도적 실천의 결과물인 것이다.

Foucault에 따르면 개인이 주체화된다는 것은 결코 구속으로 부터의 해방이나 권력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권력관계를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이란 억압받는 인간 본질을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는 Foucault에 따르면 기만적인 생각인데 그 이유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권력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는 인간 본질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본질이라는 것이 단지 권력의 효과 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고 규율화하기 까지 하게 된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는 “영혼은 육체의 감옥이다”라고 Foucault(1977: 30)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권력 작용과 무관한 인간 본질은 없다는 Foucault의 주장은 후에 살펴볼 권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권력이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면서 다양하다. 그 방식은 행위의 가능 영역을 구조화시키는 것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그것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자기감시,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규범(norm)의 설정에 의한 인간의 육체적 특징, 능력, 기능의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우리가 흔히 규율화시키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는 개인을 주체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상화(normalization)는 후에 보게 될 생명권력과 관계에서도 현대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면서 개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주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의 작동방식이라고 Foucault는 믿고 있다.

이와 같이 권력이 개인을 주체화 시킨다는 주장을 통해서 Foucault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자유주의, 계몽주의적 기획, 근대성 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율적 자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Foucault는 사회에 앞서 존재하는

5) 인간 본질은 권력의 효과라는 Foucault의 주장은 공무원의 현재의 자아는 왜곡된 자아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경쟁적이고, 창의적 자아가 공무원 본래의 자아가 될 수 있다는 행정개혁론자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empowerment”를 통한 책임 있고 경쟁적인 자아를 만들려는 시도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근간으로 보면서 그것이 가지는 규율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Cruikshank, 1999).

또는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은 상상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Foucault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율적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기술로 고해의 기술(technique of confession)을 스스로 가슴깊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해의 의무는 .... 우리 안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권력의 효과라고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면에 존재하는 진실은 단지 외부적 표출을 요구한다고 믿는 듯하다”(Foucault, 1979: 60).

바로 이 고해의 기술이 기독교의 탄생이후 서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했던 사목권력(pastoral power)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Foucault는 말한다. 사목권력<sup>6)</sup>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 위세를 잃었지만 권력이 개인의 내면에 작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오늘날 사적인 카운슬링의 범람에서 보듯이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권력은 생산적인 것이다.

관계 속에 내재하고 사회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으며, 우리의 주체를 형성하는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권력은 “사물을 횡단하고 생산한다...쾌락과 지식의 형태를 유도하고 담론을 만들어낸다”(Foucault, 1979: 94). 과거 주권(sovereignty)에 기초한 권력의 핵심은 위협과 폭력에 기초한 “죽일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kill)” 또는 “죽이거나 그냥 살게 놔두는 권리(the right to take life or let live)”인 것으로, 개인들에게서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는 공제적(deductive) 성격의 권력인 것인 반면 근대 국가에서 보여 지는 권력은 “살리거나 그냥 죽게 놔두는 권리(the right make live or let die)”로서 생산적(productive) 권력을 지향한다(Foucault, 1979: 138). 군주로 대표되는 전통적 권력이 칼과 죽음

6) Foucault(2007)는 사목권력에서 보이는 인간 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Shepherd and Flock)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권력관계의 가장 핵심 내용은 “each and all”이라는 어구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어구는 지배자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각자와 모두에게 동시에 보살핌(care) 주어야하며 이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지칭하고 있다. 목자와 양떼의 게임과 비교되는 것으로 Foucault는 “도시게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이며 Plato의 정치철학에 나타나고 있다고 Foucault는 말하면서 그 핵심내용은 비록 누구를 희생하더라도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한다.

으로 상징된다면 현대의 권력은 파괴하기 보다는 생성시키는 힘에 기초한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life-administrating power)인 것이다(Foucault, 1979: 136).

Foucault가 현대 권력의 생산적이고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근대(18세기)에 들어오면서 『규율과 처벌』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주권에 기초하여 군주가 잔인하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력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권력기술이 탄생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세기 이후로 권력은 특히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면에서 생산적인 면을 들어낸다. 예를 들어 『성의 역사 1』에서 Foucault(1979)는 19세기 특히 빅토리아시기에 권력에 의하여 성(sexuality)이 억압되었다는 Reich의 “억압가설”을 뒤집으면서 당시 성은 억압된 것이 아니라 성적 담론의 특정한 방향으로의 활성화를 조장하는 권력에 의하여 오히려 성을 만들어 냈다고 적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Collège de France*에서 한 강의에서 Foucault(2003)는 권력의 생산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주권은 새롭게 등장하는 두 가지 권력 기술에 의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 하나는 미시정치적 측면을 말하는 “규율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정치적 측면을 말하는 “생명권력”이다. 규율권력은 개인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권력으로서 개인의 행위, 습성, 태도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새롭게 만드는 권력이다. 이 권력은 당시 정착하고 있던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는 권력이었다. 뒤에서 다시 살펴 볼 생명권력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권력으로 인구를 대상으로 행사되면서 인구 자체에 나타나는 출생률, 사망률, 질병률, 우생학적 처치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행사되는 권력인 것이다.

권력의 생산적 기능이 강조되는 19세기는 자연적 질서로서의 시장과 인구가 발견되고 그와 더불어 경제학, 인구학, 심리학, 통계학 등 Foucault가 말하는 인간 과학이 기지개를 켜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생산적 권력을 유지시키고 또 거기서 자신의 학문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지식이 탄생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시기는 또한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와 자유의 부여를 통한 원격지배라고 Foucault가 정의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 또는 통치 합리성이 정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Rose, 1999).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서 권력의 성격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다.

## 5. 현대 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생명권력이라는데 있다<sup>7)</sup>.

Foucault는 서구에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어진 영토 안에서의 최고 권력이라는 주권과 더불어 그 영토 안에서의 사람과 사물들의 질서 있는 관리라는 의미로 통치(government)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확대된 가정(oikos)으로서의 국가라는 관념이 싹트게 되고 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18세기 서구유럽의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당시 새로운 지배형태로서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영향으로 발전한 지식체계로 Foucault는 경찰학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학에서 관방학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용어이다.

18세기 관방학의 발전에서 Foucault가 주목하는 사실은 이들이 국가경영의 목적으로 인구 증진, 인구의 건강과 위생을 상정하면서 인구(popul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구는 법률적, 규범적 의미가 상실된 자신만의 자연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개개인을 생물적 존재로 보면서 나타난 개념인 것이다. 19세기가 되면서 자리를 잡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통계에 기초한 인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더욱 조장하면서 인구의 생물학적 특징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되었고, 19세기 말 부터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부상은 세계 역사를 인종(race) 간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때 발전하는 우생학(eugenics)과 그것의 현실적 적용은 인간의 생물화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분석을 통해 Foucault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권력은 무엇보다 생명권력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본다. Foucault가 보는 생명권력은 권력이 통치 대상이 되는 인간을 주권의 예에서처럼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있는 생물로서 보면서 생기나는 권력이다. 생명권력이란 국가가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생물적 존재로 보면서 그 인간의 생물적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권력인 것이다. Aristotle은 정치의 목적이 “좋은 삶(good life)”를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은 (물론 남성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

7) 생명권력에 대하여는 이문수(2010a)를 참조.

치적 동물로서 그 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만 하는 존재로 보지만, 근대로 들어오면서 정치나 행정의 목적은 “삶(life)” 자체의 유지로 한정되고 인간은 그 삶을 사는 정도에서만 정치, 행정적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권력이 생물적 존재로 인간을 보는 현상은 Hannah Arendt가 오래전에 지적한 사실이다<sup>8)</sup>. Foucault는 Arendt와 마찬가지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생물적 특성들이 권력행사의 주요 고려대상이 되면서 생명권력이 탄생하는 것으로 본다. 생명권력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치적, 행정적 지배의 대상이요 객체가 되는 것이다. 19세기에 오면서 국가권력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행사되는데, “오직 그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로서의 인간인 한 해서다.” (Foucault, 2003: 240). “권력이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궁극적 지배가 죽음이 되는 (예를 들어 사형제도) 법률적 주체만을 다루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s)를 다룬다. 그들(살아있는 존재)에 대하여 행사되는 지배는 삶 자체의 수준에 적용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위협 이상으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권력에게 인간의 몸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Foucault, 1979: 142-3).

## 6. 생명권력으로서의 권력은 개인이 아닌 인구를 타깃(target)으로 한다.

생명권력은 개별 인간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인구라는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자체의 고유한 법칙과 논리로 움직이는 경제를 보는 것과 같이 생명권력에서도 인구는 자연적인 것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지 차이가 난다면 경제는 복잡한 시계와 같아서 선부른 개입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인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해와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개인 수준에서는 우연적(aleatory)으로 보이는 현상도 인구의 관점에서 보면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를 볼 때에도 특정한(punctual) 시점에서의 현상을 보는

8) Hannah Arendt(1998)는 그녀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경제와 사회의 등장으로 무너지고, 인간의 활동에서 행동(action)이 아닌 노동(labor)이 보편적이 되면서 생물적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삶(life not worth living)”이 양산되는 과정을 분석한 이후로 정치철학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그 이유는 Arendt가 생명권력과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serial)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개입을 한다는데 생명권력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결국 “생명권력이 다루는 현상이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인구 안에서의 ... 사건들이다”(Foucault, 2003: 246).

Foucault는 특히 통계학의 발전이 생명권력의 탄생과 공고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Foucault는 『규율과 처벌』에서 인간과학의 발전은 “정상(normal)”이라는 인위적 기준을 만들면서 그 범주에 못 드는 것은 모두 “비정상(abnormal)”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의 몸(body)에 대하여 규율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생명권력을 통치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는 통계학의 정규분포를 상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분포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Ian Hacking에 따르면 사회가 통계적이 되었을 때 “정상적 인간들(normal people)”은 모양(shape)을 띠게 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법칙의 중심화 경향에 일치되었을 때 정상이 된다. 반면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은 병적(pathological)인 것이 된다. 우리 중 누구도 병적인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상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다시 무엇이 정상인가를 변화시킨다”(Hacking, 1979: 2).

생명권력은 항상 인구 전체의 생산성, 건강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생명권력은 항상 우생학(eugenics)과의 연관이 의문시 되는 권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나치정권이나 국군주의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권력이 전체 인구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몸과 정신에 개입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생물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생물적 인간에 대한 개념규정이 변하면서 국가의 생명권력이 더욱 은밀한 형태로 우리의 삶의 본질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 7. 권력과 지식은 반대편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킨다.

흔히 지식 혹은 “진리체제(regimes of truth)”는 권력에 저항하거나 혹은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왔다. 특히 역사발전에 있어서 이성의 진보적 역할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지식은 인간을 미신과 미몽에서 깨우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저항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우리는 아직도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권력에 대하여 진리(진실)을 말하라(speak truth to power)”라는 어구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이와 같은 지식의 권력 저항적 기능은 Karl Popper나 Jürgen Habermas와 같이 근대성(modernity)의 진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도 공유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권력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의 권력은 지식에 정당성의 근거를 둔다. 과 동시에 지식의 발전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지식이 권력을 비판한다거나 혹은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Foucault는 일찌감치 던져버리라고 조언한다. 권력은 더 이상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은폐시키거나, 억압하면서 작동하지 않는다. 권력은 지식을 통하여 작동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미 권력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은 진리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행사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권력관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면서 그것이 권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게 된다. “지식 영역의 구성없는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권력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Foucault, 1977: 27).

권력은 그 작동이 순조로우려면 현실적으로 가족, 학교, 공장, 군대, 행정기관 등에서 통용되는 지식/진리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소 간에 일관된 지식 체계에 의하여 확인된 절차, 수단, 목적 등에 따라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없다”(Foucault, 1997: 52-53). 그러나 권력의 지식의존 못지않게 지식 역시 권력에 의존하면서 생성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고 규율화시키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객체로서의 개인과 집단을 상정하면서 다양한 인간과학(human science)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60년대와 70년대 이루어진 많은 Foucault의 계보학적 연구들이 이를 분명히 하는데, 개인을 보호시설, 병원, 감옥 등에 감금시킬 수 있었던 권력은 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근대의 심리학, 의학, 범죄학적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그는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획득된 지식은 행정권력 작동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 자체가 권력의 하부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감금된 사람들을 상대로 발전된 새로운 의료관련 지식들이 공공위생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행정부는 이 기준에 맞추어 사람들을 감시하고 분리하면서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 까지 행정권

력이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지식에 관한 주장은 현존하는 모든 지식체계는 권력관계를 중립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Foucault의 궁극적 *aporia*와 마주치게 되는데,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은 권력관계를 생성시키는 지식체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권력관계에 대한 진정한 비판을 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파트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 III. 몇 가지 문제점들

#### 1.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다.

Foucault의 권력이론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도 하지만 동시에 풀기 어려운 몇 가지 난제를 제공한다고 보인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Foucault는 우리사회가 모든 부분 구석구석 권력의 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본다. 이는 조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모두가 권력관계인 것이다. 아무리 조직을 개방적,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의 관계가 권력관계임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은 결국 아무 곳에도 없는 것과 같지 않는 가하는 의문이다. 특히 권력과 자유는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생하는 개념이라고 Foucault는 보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어떠한 권력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지 이를 분명히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진다.

과연 권력을 모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한 속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Foucault의 권력 개념이 지니는 지나친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Ernesto Laclau(1996)는 좌파 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화적 현상을 이데올로기로 보려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제국주의를 초래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개념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하였

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Foucault의 권력에 대한 논의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 이 부문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Foucault는 결코 특정한 권력 대상을 타도하는 저항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저항이 성공하더라도 남는 것은 또 다른 권력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Foucault는 미시적 수준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권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사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권력관계가 지배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권력관계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감시, 저항을 주장하는 Foucault의 입장이 상당부분 이해가 되는 것이다.

## 2. 권력의 외부에 권력을 비판할 지지대가 필요한가?

Foucault는 권력과 지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한 학자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Foucault의 권력이론도 또한 어떤 특정한 권력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모든 지식은 권력에 봉사하고 권력은 특정한 지식체계를 만든다는 주장에서 어떤 근거로 Foucault 자신의 이론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가장 통렬한 비판을 하는 Nancy Fraser(1989)에 따르면, Foucault가 이런 비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 바깥에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지지대 즉 아르키메데안 포인트(Archimedean point)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복종보다 투쟁을 선호하는가? 우리는 왜 지배에 저항하는가? 오직 어떤 종류의 규범적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만 Foucault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Foucault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권력을 수용할 수 없는 권력과 구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인 것이다.”(Fraser, 1989: 29)<sup>9)</sup>.

9) Mark Bevir(1999)은 이 문제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자율성의 부정이 꼭 행동성(agency)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우리는 지식/권력 복합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즉 자율적 행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하는 것 까지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권력의 외부를 상정해야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Fraser의 주장은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다.

Fraser는 Foucault에게 모든 인간은 소중히 간직할 어떠한 규범적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자인 Foucault에게 인간 본질은 해변에 써진 글자처럼 사라져 버린 지 오래 된 개념이다. 그리고 계몽적 이성이나 선형적 인간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도 이런 설득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Nietzsche 이후로 서구에서 주장하는 인간 본성이란 분노(Ressentiment)에서 나온 노예적 도덕 감정의 산물로 보는 Foucault와 구조주의 철학자의 입장에서 다시 이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들의 사유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 3. 권력에 대한 저항이 가능한가?

위에서 살핀 두 가지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권력을 편재적(ubiquitous)인 것으로 보고 또 권력의 외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항은 가능하며 또 그 저항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Foucault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그는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저항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는 권력관계란 인간들 사이의 전략적 관계이고 행위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권력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 권력 작동방식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윤리적 자세는 바로 지식/권력의 복합체로서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주체화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결코 권력의 덮에 빠질 수 없다. 우리는 결정적 조건에서 정확한 전략에 따라 권력의 장악력에 항상 변화를 줄 수 있다”(Foucault, 1988: 123).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1978년의 *Collège de France*에서의 강의<sup>10)</sup> 이후로

10) Foucault(2003; 2004; 2007)의 강의 가운데 1975년에서 1979년까지의 강의가 최근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후기 Foucault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첫 번째(1975-76) “사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부제로 출판된 것으로 권력, 지배, 전쟁, 주권, 민족 등의 주제를 계보학(genealogy)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책(1977-78)은 통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안전, 영토, 인구”라는 부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치와 통치성에 관한 폭넓은 분석으로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책(1978-79)은 “생명정치(bio-politics)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지닌 것으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통치 합리성의 분석으로 통해 현대 정치의 핵심에 접근하려 시도한다.

권력은 지배와 자유 사이에 위치하면서 일정한 자유를 지닌 자들 간의 “전략적 게임”으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그전의 저술과는 차이가 나게 권력이 반듯이 우리를 타율적 규율화나 정상화로 이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Foucault(1982a)는 또한 권력과 자유의 공존을 말하면서 자유는 권력의 존재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권력관계는 바로 지배(domination)로 전략한다고 말하면서, 권력에 저항하는 이유는 권력이 지배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권력은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단지 위무나 금지로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며, 그들을 통해서 행사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인데 이는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Foucault, 1977: 26-27).

#### 4. 비판에 대한 대응: Foucault의 윤리론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잠정적 결론은 권력은 우리의 사유 구조, 지식체계, 일상생활, 조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권력의 특정 목적에 따라 우리를 규정한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주어진 자유의 활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건 이런 권력의 효과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Foucault에게는 현존하는 국가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또 다른 권력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권력이론은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권력의 네트워크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주어진 자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권력의 왜곡된 적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1980년대 이후로 Foucault의 지적 관심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윤리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자유의 활용을 강조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1984년에 출판된 『성의 역사 II, III』에서 Foucault(1985; 1986)가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성윤리는 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금은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활동이 지식/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항상 그

래왔던 것은 아니다. 고대세계에서도 성적 활동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Foucault(1994a, 1994b)에 따르면, 이 고려는 어떤 한계를 정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 체계” 즉 의무와 금단의 윤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신만의 도덕률을 스스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존재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어 가는가 하는 “자아의 기술(technology of the self)” 또는 “자아미학(aesthetics of the self)” 관점에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강조되었던 극기(enkrateia)나 절제(sophrosyne)와 같은 윤리적 덕목들은 자아의 실천의 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하나의 금지체계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학파에 따라 달리 제시되는 윤리적 덕목들도 이를 개인에게 강요(impose)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권장되는(propose) 것으로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다(Foucault, 1985: 21). 즉 성적 활동에 관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관습, 종교적 금지 등으로 코드화된 몇 가지의 금지체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권리, 권력, 자유를 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들의 잠재성, 자율성,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고양시키는가하는 목적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이문수, 2010b: 228).

자신의 자아를 금지가 아닌 절제를 통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Foucault의 주장은 금지규정을 통한 권력관계의 유지를 조직생존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행정조직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단순한 사기나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이라는 생활 질서(life order)가 공무원 자신의 삶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개개인도 그 질서에 내재한 가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한다는 Max Weber(1946)의 오래된 주장과도 맥이 닿는 것이다.

#### IV. Foucault의 권력 분석들의 비판적 발전

최근 권력-주체화-저항의 맥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는 아마도 Jacques Lacan과 그의 정신분석이론을 기초로 현대의 정치,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Slavoj

Zizek, Judith Butler, Alain Badiou와 Foucault의 생명권력/생명정치 개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Giorgio Agamben, Antonio Negri 등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론들은 많은 부분 Foucault의 권력이론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내재한 한계를 초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Foucault의 권력이론이 지니는 행정학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장을 비록 요약된 형태로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주장들을 위에서 제시한 Foucault의 권력이론의 논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논점은 먼저 Foucault가 간과했다고 보이는 개인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권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 시도가 하나이고 생명권력의 기원과 작동방식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의 시도가 다른 하나가 된다.

## 1. 정신분석학으로 보는 권력

권력의 외부에 보편적 인간 본질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는 인간주의(humanism)에 기초하지 않고 권력의 내부에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학자로 Judith Butler를 들 수 있다. 그녀의 질문은 우리의 주체화란 권력에 대한 복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아이러니에 근거한 것으로 “왜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복종에 자신을 부속시키냐?” 또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주체성을 욕망하게 만드는 복종의 메카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Foucault의 권력이론에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욕망(desire)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Butler는 권력을 통한 주체화를 설명하려면 주체 외부로 가지 말고 주체의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정신[psyche: 심리학적으로 육체(soma)와 대비되는 의미로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Freud에 발견되고 Lacan에 의해 재해석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종을 통해 주체화되기를 욕망하는 개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대한 저항 역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의식을 포함하는 정신(psyche)은 주체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정신은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고 단일한 주체가 되라는 담론적 요구를 초월하는 바로 그것이다. 정신은 Foucault가 정상화 담론에 때문에 나타난다는 규칙화에 저항하는 것이다”(Butler,

1997: 86).

Butler의 주장은 복종과 주체화를 통하여 작동되는 현대의 권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주체의 개념을 넘어서는 무의식 혹은 정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권력 연구에 정신분석적(psychoanalytic)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무의식이란 우리를 한편으로는 권력에 묶이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는 욕망이나 충동이 작용하는 장을 말한다. 결국 Butler는 그녀 자신의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Lacan의 정신분석으로 권력 연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Lacan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분석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다<sup>11)</sup>. 권력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Lacan 역시 Foucault와 마찬가지로 주체는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Foucault가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Lacan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acan에 따르면 주체성은 언어와 기표(signifier)의 세계 즉 상징적 질서(상징계)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의 ego는 이미지와 기표의 세계를 통해 얻어지는 안정되고 견고한 허상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Foucault의 주체는 지식/권력에 의하여 빈틈없이 구성되지만, Lacan의 주체는 허상에 기초함으로써 불완전하다는데 두 사람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Lacan의 주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체와 그 주체를 표현하는 상징계 사이에는 구조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주체에 대한 상징화에는 필연적으로 결핍(lack)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결핍이 주체를 구성하게 된다. Lacan에게 주체는 기표의 연쇄에 나타나는 단절, 혹은 급진적 불일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때 주체는 그에 대한 상징적 묘사와 상징계에 있는 빈공간 사이에서 급진적으로 분열된 존재인 것이다.

이 주체를 초월하여 상징화될 수 없는 것을 Lacan은 실재 즉 “the real”이라고 부른다. Lacan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실재(reality)라고 부르는 것은 환상과 허상으로 가득한 것이다. Lacan의 실재는 우리의 상징화 노력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Jacques-Alain Miller는 이를 신조어 extimité 즉 배제된 안쪽(excluded

11) Lacan은 가장 독해하기 어려운 학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Lacan의 이론은 그의 저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그에 대한 이차적 연구에 기초한다: Nobus(1999), Homer(2005), Rabaté(2003).

interior)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점은 Lacan의 실재는 주체화의 궁극적 실패를 설명해주면서 권력의 외부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Foucault에는 없었던 지지대 즉 아르키메디언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 2. 생명권력과 9/11

Foucault의 생명권력이 현재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Giorgio Agamben의 저서 『Homo Sacer』(1998)가 가져온 권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비교되면서일 것이다. 그래서 생명권력에 대한 Agamben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Foucault의 생명권력에 대한 주장의 논점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Agamben은 Foucault의 해석과는 달리 생명권력은 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고대 시대 부터 주권과 항상 같이 했던 것으로 본다. 즉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Foucault가 주권을 대체하는 권력으로 생명권력의 탄생을 주장했다면, Agamben에 따르면 주권은 그 기원에서부터 생명권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Foucault가 생명권력을 생산적, 생명유지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Agamben은 생명권력은 처음 부터 “헐벗은 삶(bare life)”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수반하는 권력이다.

Agamben은 특히 고대 로마법에 존재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란 인간의 지위에 주목하는데, 이 인간은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신전에 제물로도 받쳐질 수 도 없는 존재이다. 즉 호모 사케르는 인간의 질서에도 신의 질서에도 속하지 않는 단지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Agamben은 이 호모 사케르는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를 통해서 항상 주권적 권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시에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존재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권 자체의 속성에 있다. Agamben의 주권 개념은 Carl Schmitt가 말하는 법률의 틀 안에 있지만 동시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인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주권을 이렇게 본다면 주권은 항상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생명권력을 근대의 산물이 아닌 수천 년을 지속한 권력으로 보고는 있지만 Agamben 역시 근대국가의 형성기에 들어오면서 생명권력은 더 많은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내면서 현대권력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근대 생명권력의 원형을 Agamben은 나찌의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camp)”에서 보고 있다. Agamben이 주목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이 법의 “포함적 배제”의 대상인 호모 사케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이다. 사실 Agamben의 이와 같은 주장은 1995년에 처음 나온 것이지만 2002년 9.11 사건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 특히 Guantanamo 수용소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에서 인간이 생물적 존재로 전락하는 예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Agamben의 생명권력에 대한 주장은 고대 로마에서의 경험을 서구 역사 전반에 적용시키는 급진적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현대 행정권력이 지닌 두 가지 얼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2009년 1월의 용산참사는 행정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에도 호모사케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은 던진 사건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행정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호모 사케르와 같이 “포함적 배제”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Foucault가 장기간 발전시킨 권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을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또 이를 친숙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 국가 권력의 특성과 작동방식에 대한 Foucault의 해석이 지니는 행정학적 함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에 의한 행정권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Foucault의 권력론은 행정학에 어떤 구체적 함의를 지니는가?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논거를 중심으로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한 후 논문을 매듭지겠다.

무엇보다 Foucault가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것은 그것이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행태론적 권력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영향력의 크기를 좌우하는 일정한 특성의 소유 정도로 정의하는 시각에서 사회는 권력의 집중 여하에 따라 민주적 다원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지만 이는 권력이 우리의 주체화에 깊숙이 간여하면서 전체 사회가 - 그것이 19세기의 자유주의 또는 20세기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건 상관없이 - 일정한 통치성의 논리에 따라 구성된다는 Foucault의 시각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분류가 된다. Foucault에 따르면 비록 우리가 권능강화(empowerment)를 통해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권력관계의 틀에서 해방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며, 권력은 우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에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신자유주의에서의 지식-권력 복합체는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개발, 자기변혁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경쟁의 장에서 도태됨을 당연시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 가장 저비용으로 통치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연 권력을 계속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가이다. 흔히 행정학에서는 권력, 권한, 권위 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권력을 물리력을 수반한 강제력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Max Weber의 권력론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19세기부터 국가 권력의 원천이 주권(sovereignty)으로 부터 통치성에 기초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으로 이동한다는 Foucault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규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수단을 통해 산출된 정책들은 그것이 비록 강제적 내용이 없는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정책일지라도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산적으로 형성/재형성시키는 것이다. 현대 행정에서 지식/권력의 대표적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생산적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Foucault의 권력론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21세기 변화된 환경에서의 행정의 세계사적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는 점이다. 20세기에 벌어졌던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들을 상기하면서 Arendt와 마찬가지로 Foucault(1994a)의 수수께끼는 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괴적 구조와 개인 생활의 보살핌을 추구하는 제도”가 공존하는가 하는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생명권력은 현대 국가의 행정력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살게 만드는(make live)”는 권력으로 작동하였지만 동시에 그 전의 역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관료제를 통한 대량학살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의 생명권력은 분명히 Zygmunt Bauman(1989)이 말한 “정원국가(gardening state)”와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 것이다. Foucault가 『성의 역사, 1』의 마지막 장에서 나치의 인종주의를 설명하면서 내가 속한 인종의 순수함과 건강을 위해서 타인종을 말살할 수 있고 또는 반듯이 그래야만 한다는 논리를 생명권력의 또 다른 발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잡초를 제거해야 정원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Bauman의 “정원국가”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위의 Foucault 이후의 권력의 장에서 다루었던 Agamben과 Butler, Lacan 등의 권력 논의와 Foucault의 권력론 사이에 의미 있는 접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접점의 핵심내용은 과연 현대의 행정권력은 사회에서 별다른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지 살아 있을 뿐인 수많은 인간을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서 여분의(superfluous) 존재로 전락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 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현대의 생명권력이 인구로 상징되는 전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감금시키고 도태시킨다는 Foucault의 주장은 우리 모두 잠재적 “호모 사케르”라는 Agamben의 주장이나 “쓰레기가 되는 삶(wasted lives)”에 대한 처리(disposal)가 세계화된 시대의 현대 국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Bauman(2004)의 주장과 더불어 현대 행정권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풀기 힘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Lacan에 따르면 실재(the real)는 상징화가 실패하는 틈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우리는 갑자기 언어, 법률, 제도와 같은 상징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권력의 추악한 모습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무상 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분명 복지라는 상징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를 상대로 생명권력으로서의 행정권력이 생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역에서는 “쓰레기가 되는 삶”의 대

표적 형태인 노숙인들을 상대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생명권력으로서의 행정권력의 실제(the real)에 더욱 가깝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전자가 “삶을 촉진시키는 권력(a power to foster life)”이라면 후자는 명백히 “죽음에 이르도록 삶을 허락하지 않는(disallow [life] to the point of death)” 권력인 것으로 Foucault(1979: 138)는 이 둘을 현대 생명권력의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행정권력이 지니고 있는 아포리아는 아마도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를 살게 만드는 권력이 바로 그런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배제하려 한다면 이런 권력에 대하여 행정학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이문수. 2010a.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Foucault가 보는 행정권력의 기원과 현재“. 『한국행정논집』 22(3): 939-958
- \_\_\_\_\_. 2010b. “행정관료에게 주체적 윤리란 무엇인가?: Max Weber, 행정개혁론자의 윤리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Michel Foucault 윤리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정부학연구』 16(2): 211-239.
- 이동성. 2009. “권력과 지식 그리고 주체-푸코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5: 277-317.
- 최정운. 2000. “푸코를 위하여 :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철학사상』 10: 63-80.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thusser, Louis.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2nd ed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chrach, Peter and Morton Baratz. 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947-752.
- Bauman, Zygmunt.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4. *Wasted Lives*. Cambridge: Polity Press
- Bevir, Mark. 1999. "Foucault and Critique: Deploying Agency against Autonomy". *Political Theory*. 27(1): 65-84.
- Butler, Judith. 1997.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1957.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 2 (July): 201-115.
- Dean, Mitchell. 1999.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Thousand Oaks: Sage.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Harmondsworth: Penguin.
- \_\_\_\_\_.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 \_\_\_\_\_.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77*, C. Gordon ed., New York: Harvester Press.
- \_\_\_\_\_.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in S.M.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 L. Dreyfus & R. Rabinow,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 Press.
- \_\_\_\_\_. 1985.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6.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3. The care of the Self*.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8. "Power and Sex", in *Politics, Philosophy, Culture: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7-198*, trans. by Alan Sheridan et al., eds by L. Kritzman,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4a. "Technologies of the Self", in P. Rabinow ed. *Ethics: Subjectivity and*

- Truth*.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1994b. "On the Genealogy of Ethics: An Overview of Work in Progress. in *Ethics*.
- \_\_\_\_\_. 1997. *The Politics of Truth*, ed. S. Lotringer & L. Hochroth. New York: Semiotext.
- \_\_\_\_\_.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1976*. Trans. by David Macey. New York : Picador.
-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 \_\_\_\_\_.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79*. Trans. by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 Fraser, Nancy. 1989. "Foucault on Modern Power: Empirical Insights and Normative Confusions", in *Unruly Practices: Power, Discourse and Gen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 Gordon, Colin. 1991. "Governmental Rationalities: An Introduction," in G. Burchell et. al.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cking, Ian. 1982. "Biopower and the Avalanche of Printed Numbers," *Humanities in Society*. 5(3-4) : 279-94.
- Hayward, Clarissa Rile. 2004. *De-Facing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mer, Sean. 2005.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
- Laclau, Ernesto. 1996. "The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Theory of Ideology",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3): 201-220.
- Lemke, Thomas. 2002. "Foucault, Government,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3): 49-64.
-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 Nobus, Dany. ed. 1999. *Key Concepts of Lacanian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Rabaté, Jean-Michel. ed. 2003. *The Cambridge Companion to Lac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 Nikolas. 1999. *Power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vers, Camilla. 2008. *Governance in Dark Times: Practical Philosophy for Public Servi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46. Politics as a Vocation, In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Trans. H. H. Gerth and C. W. Mill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